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수정보고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불합리한 관계
(「기계도시」의 미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2017*****
김명규

1. 서론

1970년대에 쓰인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상으로 나타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 즉 갑과 을의 관계를 작가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불합리한 관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앞으로도 해결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없다. 이 끝없는 악의 대물림, 악순환 속에서 국민들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시인과 작가 등 여러 문학가들은 작품으로써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들의 문체는 독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들을 공감하고 울어줌으로써 위로해준다. 이 작품을 쓴 소설가 조세희도 마찬가지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연작 소설로 출간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많은 작품들이 어우러져 독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다. 작품이 출간하고 약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작품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만큼 문학사적 의의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나타낸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세희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는지, 또 그것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2. 소설 속에 드러난 미학적 특징

당시 시대상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달한 조세희는, 그의 소설 속의 다양한 미학적 특징들을 이용함으로써 그 상황을 강조할 수 있었다. 미학적 특징이라는 일종의 구조적인 기법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회 현실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부터는 그의 소설 속에 드러난 다양한 미학적 특징을 소설의 여러 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조

먼저, 그는 ‘대조’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로 대표되는 피지배층들의 안타까운 삶을 강조한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삶이 대조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작가는 대조의 기법을 사용해서 직간접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 혹은 노동자들의 암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나라 전체가 바짝 말라 타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윤호 개인으로서는 걱정할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설치하게 한 냉방기가 잠을 하나 안 내고 찬 공기를 내뿜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80쪽

나라 전체가 바싹 말라버릴 정도의 뜨거운 여름에 윤호에게는 걱정이 없다. 아버지의 재력에 힘입어 시원한 냉방기를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의 불편한 상황과 대비되는 소수의 권력자들의 편안한 상황을 대비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1883년 개항과 더불어 국제적 무역항으로, 산업 도시로 발달한 은강의 역사를 배운다.

은강 공업 지대는 금속, 도자기, 화학, 유지, 조선, 목재, 판유리, 섬유, 전자, 자동차, 제강 공업이 성하고, 특히 판유리는 한국 최고의 존재로 교과서에 나와 있다.

또 조수 간만의 차가 구 미터에 이르나 갑문식 도크를 설치하여 불편을 제거했다.”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간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 공기 속에는 유독 가스와 매연, 그리고 분진이 섞여 있다. 모든 공장이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는 흑갈색, 황갈색의 폐수, 폐유를 하천으로 토해낸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85쪽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중 「기계 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했다. 사건의 주 배경이 되는 은강시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위치에서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은강시의 역사에 대해 가르친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기 좋게 나열한 내용일 뿐, 정작 들춰내야 할 그 속의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국제적 무역항, 산업도시로 발달된 도시로 포장되어 기억될 뿐이다. 아이들은 은강시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해 알 방법이 없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의해 그들의 사고는 이미 기득권에게 맞춰진다. 그들은 오히려 은강시를 자랑스럽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강시의 겉과 속은 완전히 다르다.

교과서에 나온 포장된 모습의 은강시는 여러 가지 공업 기술이 발달되어 나라의 자랑이 되는 도시이다. 물론, 시를 관리하는 고위층들은 발전된 도시의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공장에서 일하면서 은강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동자의 모습, 그리고 공장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보면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우며 편안한 도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습이 보인다. 은강을 향한 기득권의 태도와 노동자의 현실을 대조로 표현하여, 노동자의 비극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나타나는 실상을 강조한 것이다.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기계들은 정밀한 것이었지만 그 사회는 이상한 습성, 감시, 비능률, 위험 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0쪽

정밀하고,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기계들과 다르게, 정작 사회는 불규칙적이며 비합리적인 모습을 대조를 통해 강조한 부분이다. 공장 안의 기계들은 능력을 높여주고, 은강시에 보다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내지만, 그 이면에는 감시와 위험이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

밀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위험 속에서 노동자들은 아파한다.

2) 비유

어떤 대상을 무언가에 비유하는 것은 그 대상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는 이러한 비유가 종종 나타나는데, 그 중 「기계 도시」에서도 비유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기계 도시」라는 제목부터 이미 비유를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은강을 나타낸 「기계 도시」는 공업화, 산업화가 일어나는 은강의 모습을 제목에서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과연 「기계 도시」가 시각적인 기계의 모습만을 나타낸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아니다. ‘기계’는 분명 표면적인 기계뿐만 아니라 피지배층의 노동자들을 나타냈을 것이다. 산업화가 성행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기계처럼 일만 하게 된다. 그들이 기계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목숨조차 위협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지배층의 입맛에 따라 수단이 되고, 그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기계화가 된다. 작가는 「기계 도시」라는 제목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비유로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은강시는 윤호의 머릿속에 어두운 그림으로 남아 있었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딸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윤호에게 은강은 작은 유성 표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80쪽

기계도시의 배경이 되는 ‘은강’이 ‘윤호’에게 어두운 그림으로 남아 있다는 표현을 통해, 은강과 관련된 무언가가 윤호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뒤의 문장을 통해, 죽은 난장이의 죽음이 윤호의 안 좋은 기억과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윤호에게 은강은 ‘작은 유성 표면의 한 부분’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었었다.

“윤호는 그의 죽음을 한 세대의 끝으로 보았다. 윤호는 여자아이와 자면서도 난장이의 죽음을 생각했었다. 여자아이들은 그것을 싫어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81쪽

난장이의 죽음을 ‘한 세대의 끝’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윤호에게 난장이의 죽음은 큰 영향을 줬음을 알 수 있다. 난장이가 살아있는 동안을 한 세대라고 볼 정도로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아이와 동침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위치에 있는 피지배층, 난장이의 죽음을 생각하는 장면을 통해, 윤호의 사고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여자아이들과는 대비되는 사고를 드러내면서, 작가는 ‘윤호’와 같이 피지배층을 생각하는 기득권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죽였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81쪽

이 표현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죽다’라는 표현을, 일반적인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닌, ‘사고의 죽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학교, 학원, 그룹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들인 poverty, population, pollution 같은 단어들은 학생들에게 그저 시사 용어 혹은 입시를 위한 암기단어일 뿐이다. 특히, 빈곤을 뜻하는 poverty이나 오염을

뜻하는 pollution 같이,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항상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진정한 경각심이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한낱 암기단어로 치부된 이 단어들은 학생들의 사고를 막는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죽였다’고 표현을 한 것이다. 이는 기득권 계층의 아이들이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권력에 안주하여 이러한 지배구조의 대물림이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이다. 작가는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비유하여 이를 강조한 것이다.

“은강 사람들은 거기서 그친다. 하루에 십만여 톤의 폐수를 바다로 흘려넣은 그 공장 지대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장 지대에 머물렀던 바람이 다시 주거지로 불지 않는 한 그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87쪽

여기서 깊은 잠이란, 무언가에 대해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막상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에만, 무언가 비상 태세를 취한 주거지의 시민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에 대해 무더진다. 정확한 문제 원인이나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상태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비유한 것이다. 작가는 이 비유를 통해 피지배층 스스로도 문제 의식을 잃어버려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안주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은 섬으로 없는 조개와 게를 잡으러 간다. 은강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생각한다.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서울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85쪽

이 장면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거나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은강 사람들은 없는 조개와 게를 잡으러 다니는 서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서울 사람들은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모습에서 은강의 상황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표현했다. 은강 사람들은 산업 도시로 발달한 은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긴다. 그러나 정작 불행한 이들은 은강 사람들이다. 앞선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강 사람들은 지배층의 입맛에 맞게 피지배층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작가는 이 비유를 통해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진 현실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3) 상징적 언어

은강시의 바람은 은강시의 권력가들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은강 사람들은 원래 바람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으로 인해 유독가스의 피해를 입은 은강 사람들은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이를 ‘은강에서 바람 이상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작품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는 권력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피지배층들에게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그 후 매일 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바람은 은강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목할 점은,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서울에 있는 권력 집단이라는 것이다. 공장에서 바람이 머물다가 거주 지역으로 바람이 향하는 모습에서 서울에서 은장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고, 결국 권력의 피해자는 권력자 외의 노동자나 시민들이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바람을 권력가들의 권력과 연결해 볼 수 있다.

4)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액자식 구성

동일한 등장인물과 동일한 배경이 반복되면서도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한다.¹⁾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경우에도 흔히 연작소설로 불리는 이러한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 난장이 가족과, 신애, 그리고 윤호 등 등장인물들이 각각 한 작품의 주인공을 맡아 그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기계 도시」의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윤호’에 초점을 맞춘 이 작품은, 이전의 작품들에 등장한 난장이에 대해 언급을 한다. 앞서 말했듯이, 윤호의 삶에 난장이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작품에 등장한 난장과 같은 세계관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카레스크식 구성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일부로 모두 언급하지는 않는다. 「기계 도시」의 경우에는, 윤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난장이의 자녀들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지 않은 채, ‘큰 아들, 작은 아들’로 대체된다. 하지만, 이 소설집을 읽은 독자들은 그들이 각각 ‘영수, 영호’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액자식 구성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피비우스의 띠」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피비우스의 띠」의 세계관이 외화로, 그리고 그 안에 나머지 작품들이 내화로 들어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띄는 것이다.

5) 구체적 수치

「기계 도시」에서는 “1883년 개항”, “은강의 면적은 백구십육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팔십일만 명이다.”같이 비교적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다. 특히, “노동자 교회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자료”를 표라는 시각적 자료로 직접 제시하여, 현실감을 더욱 높인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불합리한 관계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현실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이들과 같이 피지배층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문제를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3. 결론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불합리한 관계 또한 끝없이 대물림되는 사회 문제이다. 누군가는 항상 감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되어 감이 을을 착취하게 된다. 을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타자에 의해 자아가 뺏기고 ‘타자화 된 자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끝없는 악순환이 과연 해결이 될까? 필자에게에 대해 분명 쉽지 않다고, 아니 매우 쉽지 않다고 답을 하고 싶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

1) “피카레스크식 구성? - 옴니버스식 구성?”,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80623&cid=47319&categoryId=47319>>, (2017. 12. 11).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같은 작품들을 보고 있다면, 정말 우습지만 또 마음 한 쪽에서는 희망의 불꽃이 붙는다. 그것이 바로 문학가들의 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는 것 말이다. 아무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점점 늙어빠져버리는 이 냉담한 현실 속에서, 문학가들은 불화살을 쏜다. 조금이라도 불꽃이 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세희 외에도 분명 많은 문학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 작품을 화살로 삼아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것을 통해 마음 속에 조금이나마 불꽃을 옮겨 받는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불꽃을 점점 더 키울 수 있다. 아니, 키워야 된다. 문학가들이 화살을 쏘는 임무를 다 마쳤다면, 우리도 맡은 임무를 다 해야 된다. 불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결국에는 쫓겨 버린 사회 문제라는 빙산을 향해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4. 참고문헌

*저서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00.

*기타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피카레스크식 구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80623&cid=47319&categoryId=47319>